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7. 13.(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담당 자	• 과장 김성희, 서기관 임정은, 사무관 서밀가 - ☎ (044) 200-5480, 5481, 5483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담당 자	• 과장 김재형, 서기관 이수현 - ☎ (044) 201-2171, 2176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농수산물식품 전용 선박 확보로 수출활성화 도모한다

- 미주 노선 임시선박에 농수산물식품 전용 선박 물량 확보 17일 첫 출항 -
- 13일 오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HMM 간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내 농수산물식품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물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선박이 오는 7월 17일(토)에 첫 출항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1년 상반기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54억 4백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농식품 4,154백만 불, 수산물식품 1,250백만 불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노선에 매월 265TEU(농식품 200TEU, 수산물식품 65TEU)의 농수산물식품 전용 선박을 확보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 6월 24일부터 1항차 대상기업을 모집한 결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물식품 14TEU가 신청·접수되었으며, 이들을 실은 선박이 7월 17일에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하여,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물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국적선사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7월 13일(화) 오후 2시에 ‘수출 농수산물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MM은 2021년 하반기(7~12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물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우선 제공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 대상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물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량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식품의 경우, 8월부터는 소량혼적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식품은 품목에 따라 출하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여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수산물식품 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